

전체 주제:

이사야서에 있는 신성한 경륜

메시지 27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네 단계 안에 있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1)

그분의 성육신의 단계 안에서

성경: 사 53:1-3, 고전 1:22-24, 고후 8:9, 막 6:1-6

**I.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력 안에 계시는 그분 자신을 상징하는 표현의 형태이다. 따라서 여호와의 팔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사 53:1하.**

- A. 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오셨을 때 여호와의 팔이 계시되었다—눅 4:14, 18-19, 막 1:14-15.
- B. 구약의 용어 *여호와의 팔*이 신약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전 1:24.
- C. 비록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팔로서 계시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능력을 가지고 오신 여호와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이 여호와 앞에 연한 식물같이 자라셨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았다—2상, 요 1:46, 마 13:55.
- D.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통곡할 것이며(슌12:10-14), 그 때에 그들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인정할 것이며 이 내용을 충분히 맛 볼 것이다.

**II. 여호와의 팔로 상징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으로 상징된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53:1하, 3상, 요 1:1, 14, 딤후 2:5.**

- A. 여호와의 팔은 능력이 있는 여호와이시고 슬픔의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이 둘이 함께 더해질 때 성육신과 동일하다.
- B. 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53장 3절의 슬픔의 사람과 동일하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1절에 있는 여호와의 팔과 동일하다.

**III. 온전한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비천하고 슬픈 인생을 사셨다—2-3.**

- A. 그분은 여호와 앞에 연한 식물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셨다—2상.
  - 1. 여기서 식물은 부드럽고 작고 가냘픈 싹을 가리킨다. 그분이 그렇게 작고 가냘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2.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셨다. 이것은 그분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음을 의미한다—2하, 눅 2:21-24, 고후 8:9, 비교 레 12:8.
  - 3. 주 예수님은 멸시받는 지역인 갈릴리와 멸시받는 동네인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

라셨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마른 땅의 성취였다.

- B. 그분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다—2.
  - 1. 예수님께서서는 고운 모양도 없으셨고, 아름다운 외양도 가지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른 이들이 귀히여길 모양이나 미모가 없으셨다.
  - 2. 그분은 위엄 대신에 가난하셨고 아름다운 모양 대신에 상한 얼굴과 모양을 가지셨다—52:14.
- C.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싶어 버린 바 되어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으셨다—53:3.
- D. 주 예수님께서서는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으로 사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위한 자격의 일부였다—3상:
  - 1. 그분은 누림, 행복, 축복의 사람이 아니셨다.
  - 2. 이사야 5장, 시편 22장,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7장을 상고할 때, 우리는 멸시 받는 슬픔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E.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람이셨고 그렇게 비천하고 슬픈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사탄, 죄, 죽음, 자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히2:14-18; 마 1:21.

#### IV. 마가복음 6:1-6은 이사야 53:2-3의 신언의 성취로 간주될 수 있다:

- A. 천연적인 지식으로 눈이 가리워진 나사렛 사람들은 영이 아닌 육체대로 주 예수님을 알았다—막6:2-3; 고후 5:16.
- B. 마가복음에서만 주 예수님이 목수라 불렸다—6:3:
  - 1. 목수의 일은 장대한 일이 아니고 섬세와 인내를 많이 요구한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주 예수님은 고상하고 높은 사람이 아닌 비천하고, 섬세하고, 인내 있는 사람의 모양(빌2:8)으로 나타나셨다.
  - 2. 마가복음 6:3 에서 목수라는 단어는 멸시받는 어조로 사용되었다:
    - a.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의 역사로 놀랐지만 그들은 그분을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여겼다—2-3.
    - b. 그들이 그분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을 듣고 기적의 행위를 보고도 그분을 높은 신분이나 계급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했다.
    - c. 그들은 주 예수님을 단지 목수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에 대해 실족했고 그분을 멸시했다.
- C. 마가복음 6:1-6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하는 기록이다.